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김안나** · 이은미***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중반기까지 3만 3천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이들의 남한 사회로의 정착과 통합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이에 관한 많은 수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주제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흐름을 파악할 연구 동향 분석은 드물었다. 본 연구는 스코핑 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에 관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DBpia와 KISS를 중심으로 등재(후보)지에 발표된 총 190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통합에 관한 연구들은 2011년을 기점으로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속해서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절반 이상의 연구들이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제별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에 관한 접근, 정책 및 제도로의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통일 관련 주제, 연구 동향 분석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되었고, 그 가운데 사회·문화적 접근에 관한 연구들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실질적 주체인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연구, 이들의 역량 강화 방안들에 관한 연구, 체계적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통합 개념에 대한 학문적 정교화 작업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북한이탈주민, 통합, 연구 동향 분석, 스코핑 고찰

* 이 연구는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6S1A3A2924944)을 받아 수행되었음.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ankim@cu.ac.kr)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통합연구소 연구교수(miya22800@cu.ac.kr)

1. 서론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선언된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북한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됨으로써 한반도에는 동일민족 간 분단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오랫동안 통일의 노력은 거듭 계속됐지만 동족 간 분단이라는 현실은 여전하다. 70여 년이란 긴 시간 동안의 분단 현실은 단순히 남북한 간의 정치적 이념 대립만을 형성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분단된 채 살아감에 따라 남한과 북한은 언어, 문화, 교육 등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점점 더 다른 양상을 갖춰나갔다. 이를 분단국가의 현실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이들의 사회 정착 및 통합에 관한 주요 변수로 이해되고 있다.

분단 이후 정치적 이유 등으로 탈북하는 이들은 있었지만 1996년 북한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가 도래하면서 그 수는 월등하게 급증하게 된다. 그 후 2001년을 기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수는 매년 천명을 넘어섰고, 2009년에는 통일부 집계 현황상 당해 2,914명이라는 최고치를 달하게 된다(통일부, 2019). 이후 연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매해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천명 이상이며 현재 남한에는 총 3만 3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라는 말은 단순히 이들의 양적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북한 사회에서 줄곧 생활해오다 언어만 엇비슷하지 가치관, 문화, 경제체계 등 모든 게 다른 남한 사회에 새로이 정착하고 적응하며 더 나아가 현 사회에 통합되어야 할 이들이 3만 명 이상임을 뜻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경계선을 넘어 남한에 입국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사회에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한국에 잘 ‘들어왔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문제는 단순히 이들의 수적 증가로 논쟁거리가 된 것만은 아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나 다른 제3의 국가에서나 특유의 사회적 위치에 놓인 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이 국내-,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통합되어 살아가는 문제는 현 다문화사회를 위해, 훗날 이루어질 통일사회를 위해, 그리고 광의적으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더군다나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나 이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등은 언젠가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마주할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기도 하다(강동완, 2019).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은 향후 통일시대에 사회통합에 기여할 계층이다. 통일대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향후 남북 사회통합과정에서 남북 주민들의 융합 및 가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까지 강조하였다(김화순, 최대석, 2011: 55). 그렇기에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원만히 통합되는 사안은 현시점에서나 앞으로의 시점에서나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양상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관련된 연구 역시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한 사회로 통합되는 데에는 직장 생활을 비롯한 경제적 안정, 교육, 문화, 언어 등 다방면이 관련된다. 그렇기에 정책 관련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 심리, 교육 등 각계각층의 학술 분야에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도 급증하고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고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에 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이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국내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파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존에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정신건강 연구 동향 분석(양옥경, 윤지혜, 2017), 정착지원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이민영, 2015),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 게재논문 분석(금명자, 2015), 탈북청소년 관련 학술지 논문 분석(윤혜순, 2014) 등 주로 특정 영역에 한정하여 진행되어, '통합'이란 포괄적 주제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개괄적으로 접근·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의 개괄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집중적인 연구의 필요가 있는 연구주제 및 영역, 나아가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방법론적으로 문헌 고찰 방법 중 '스코핑 고찰(Scoping Review)'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관련된 연구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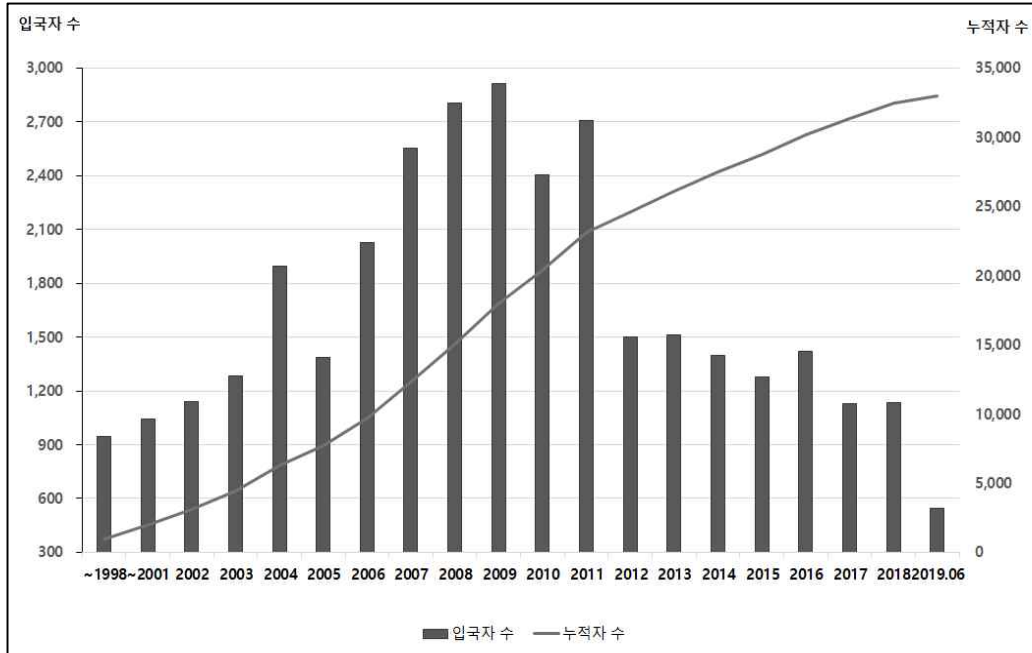
1) 북한이탈주민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귀순자, 월남인, 탈북민, 탈북자, 새터민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었다. 그 가운데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란 뜻의 순우리말로 월남인, 탈북민 등의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자 200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김성경, 2016). 하지만 본 용어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 떠돌아다니는 화전민을 연상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탈북단체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였고, 이에 통일부는 2008년 11월

될 수 있는 한 새터민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는 안 쓰겠다고 발표, 국정감사 이후로는 더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김화순, 최대석, 2011). 그렇지만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본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은 없기에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다. 본 법률 제2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는 북한을 벗어난 이후 다른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로 “가장 많은 북한 주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즉 전원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표현했다(김화순, 최대석, 2011: 55).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10명 내외로 정치적 망명이 주를 이루다가 1990년 중반 무렵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 등 심각한 경제난이 발생함에 따라 입국자 수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탈북의 성격 또한 정치적 망명보다는 경제적 난민의 성향을 더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9년 이전까지는 두 자릿수이었다가 1999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게 되고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그림 1). 2002년에는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자 수가 천명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다 2012년 이후 김정은 정권이 등장하면서 입국 인원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미 2010년 9월에 김정일이 김정은을 ‘영도자’라 호칭하면서 권력 승계를 공식화했지만, 정식으로는 2012년 4월을 기점으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게 된다. 이전 정권과 달리 김정은 정권은 시장 통제를 하지 않아 일반 주민들의 생계가 다소 나아진 점, 그리고 국경지대에 대한 경계 태세 강화 등으로 인해 탈북을 시도하는 이들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양옥경, 윤지혜, 2017). 그렇지만 매년 입국자 수는 꾸준히 최소 천 명 이상에 달하여 2016년에는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고 현재(2019년 6월 통일부 통계)는 근 3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1]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현황



자료: 통일부(2019).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현황.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 일명 브로커들을 통해 베트남이나 미얀마, 라오스 등을 거쳐 태국에 입국하는 탈북 경로를 거치게 된다(강동완, 2019). 북한 경계선을 넘어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도착하기까지 이들은 줄곧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하며, 태국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에 도착하면 80% 이상 탈북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강동완, 2019). 그 후 일정한 과정을 거쳐 한국 정부에 인계된 다음 남한으로 최종 입국한다.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개인 신분 확인 및 탈북 과정 등에 관한 합동신문을 받게 되고, 본 조사과정이 끝나면 북한이탈주민은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거나 진로에 관한 교육, 혹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등 3개월간 남한에서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응교육을 하나원에서 받게 된다(통일부, 2019). 본 교육 기간이 끝나면 최대한 본인 의사에 따라 거주지역을 결정, 정착도우미¹⁾와 보호 담당관 등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정착지원은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하며

1) 정착 도우미란 “탈북민이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 대상자를 돕기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로 거주지 안내를 비롯하여 입주지 청소, 초기 정착 물품 구매, 지역 생활 안내, 가정 방문 등의 서비스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한다(남북하나재단, 2019).

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5년간 취업, 교육, 법률, 생활, 의료지원 등 정착과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적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정착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이 추가로 제공되고 있다(복지로, 2019).

2) 사회통합의 개념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한 개인이 어떠한 사회에 새로이 적응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와 각기 다른 사회가 서로 합쳐져 간다는 의미 등을 포함한다(권숙도, 2018; 이민영, 2015). 전자가 미시적 차원이라면 후자는 거시적 차원이다. 미시적 차원의 사회통합은 생활습관, 도덕, 가치관 등을 포함한 개인들의 집합적인 심리·사회적 통합으로 해석되는 반면, 거시적 차원의 사회통합은 정치·경제적 통합으로서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이라고도 불린다(송은희, 설진배, 2013). 이처럼 사회통합이란 용어는 개인의 적응에서부터 사회 구조적 체제 통합까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에 일률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을뿐더러 학문 분야별로도 각기 강조하는 관점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협의적으로 명명할 때는 전자에 한하고 광의적으로 이야기될 때는 후자까지 포함하지만(송은희, 설진배, 2013) 학자마다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개념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파슨스(Parsons)는 퍼스널리티(personality)란 개념을 도입, 이를 “살아있는 유기체의 동기화된 행동이 조직화된 체계”라 정의하며 행위체계에 있어 핵심으로 삼았다(Parsons & Shils, 1951: 54; 이윤희, 2006: 17 재인용). 그는 행위를 세 개의 하위체계(퍼스널리티, 사회체계, 문화체계)로 구분, ‘거시-미시 통합 이론’을 고안하였고 이러한 퍼스널리티와 사회체계(개인과 구조)는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보았다(이윤희, 2006). 더 나아가 파슨스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기본가치”인 집단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고상두, 2010: 272). 크레켈(Kreckel)은 사회통합을 체계통합과 가치통합으로 구분하였다. 가치통합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통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연대에 기초한 심리적 통합을 의미하는 반면, 체계통합은 정치 및 경제 제도의 통합으로서 도덕적 연대 없이 작동되는 화폐와 권력에 의한 통합을 뜻한다(고상두, 2010). 크레켈은 사회통합의 하위체계인 체계통합과 가치통합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사회통합이 달성된 것으로 보았다. 대표적인 통일 국가로 손꼽히는 독일은 크레켈의 사회통합 개념을 적용하였을 때 체계통합은 이루었지만 가치통합은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송은희, 설진배, 2013) 체계통합을 넘어 미시적·개인적 차원의 가치통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기계적인 연대와 유기적

인 연대 참여 및 접근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사회자본의 존재, 인구학적 안정성, 사회적 통합, 경제적 통합, 지역사회의 삶의 질, 개인적인 삶의 질 등 5가지로 구분한 던하임 등(Dunhaime et al.)과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영역으로 구분한 라줄튼 등(Rajulotn et al.)이 있다(송은희, 신은성, 2012).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맞춰 사회통합을 정의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민영(2015: 43)은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차별이 없고 분리되지 않으면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고 만족하는 개념과 그것을 이뤄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사회통합을 포괄적으로 바라보았다. 권속도(2014: 104)의 경우 “외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제도로서의 남한 체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이며 “내적으로는 남한 체제의 가치기반에 대한 동의”로 설명하였고, 송은희와 신은성(2012: 12)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고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경제적 적응과 사회적·문화 및 심리적 적응”으로 사회통합을 구분하였다. 한편, 김화순과 최대석(2011)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이른바 남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합의를 사회통합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거시적 차원으로써 광범위하게 바라보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자립해나가는 데 필요한 총체적 과정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제적 자립을 비롯하여 남한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여가 및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영역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관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특성을 갖추고 있었는가를 개괄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Arksy & O'Malley(2005)의 스코핑 고찰 방법을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에 관한 연구 동향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문헌 고찰 방법은 기존의 문헌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체·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다시금 합치는 학문적 노력으로,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자료들의 일반성을 높이고자 함이다(이민영, 2015). 체계적 문헌 고찰, 메타 분석, 기존연구 독해 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스코핑 고찰은 고찰 주제에 광범위하게 접근하면서 관련 연구들에 관한 개괄적인 분석과 포괄적인 파악을 핵심으로 삼는 분석법이다(김예영, 유소연, 오진아, 2017).

스코핑 고찰의 명확한 개념 정의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분분한 실정이지만, 고찰 대상에

관한 다양한 영역 및 유형의 연구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분석 주제에 기반한 핵심개념, 주요 자원, 유형 등에 관한 빠른 분석을 목표로 삼는 데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김예영, 유소연, 오진아, 2017; Arksy & O'Malley, 2015). Arksy와 O'Malley는 스코핑 고찰의 필요성을 연구 활동의 정도와 범위 및 특성 파악, 체계적 문헌 고찰의 필요성 여부 파악, 연구 결과 요약 및 확산,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간 차이(gap) 파악이라 언급하였다(Arksy & O'Malley, 2015). Arksy와 O'Malley는 스코핑 고찰을 위한 다섯 단계를 제시하였고, 본 연구는 이 순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1) 연구 질문 파악(Identifying the Research Question)

첫 번째 단계는 어느 연구방법들과 다를 바 없이 연구 질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에 관한 연구들은 어떤 동향을 보이는가?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향후 연구 방향 및 접근방법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2) 관련 연구 확인(Identifying Relevant Studies)

본 단계에서는 앞서 제시한 주된 연구 질문들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들을 확인한다. 가능한 관련된 연구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현실적인 관점에서 언어와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설정을 권고한다.

본 연구는 현재 법률상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통합’을 주요 검색어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여전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탈북자, 탈북민, 새터민 등의 용어도 포괄하여 검색하였다. 2018년도까지 국내 KCI 등재(등재후보지 포함) 학술지에 출간된 국내 연구로 한정하였으며, 국내 대표 학술논문 검색사이트인 DBpia와 KISS에 교차 수집하였다. 본 과정으로 총 209편의 논문들이 검색되었다.

3) 연구 선택(Study Selection)

본 단계에서는 연구의 주된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할 논문들을 선택하게 된다. 1단계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 질문과 무관한 연구들을 연구자들의 포함 및 삭제 관련 선정 기준에 따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분석할 연구대상을 선택할 때 “체계적 문헌 고찰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보다 포괄적이고 폭넓은 선택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대상 연구에 대한 엄격한 질 평가 과정”이 포함되지는 않는다(김예영, 유소연, 오진아, 2017: 49). 하지만 요약본뿐만 아니라 모든 원문을 확보하여 읽고 난 후, 최종 결정을 하도록 권고한다(양옥경, 윤지혜, 2017).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은 연구선택과정을 거쳐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다룬 국내 KCI 등재(후보) 학술지 논문만을 포함, 그런데도 내용상 무관하다고 연구자들이 모두 판단·동의할 경우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90편의 논문들이 선택되었다.2)

[그림 2] 연구선택과정

	DBpia	KISS
주제어1: 북한이탈주민 or 탈북민 or 탈북자 or 새터민	1,227	1,324
↓		
주제어2: 통합	190	163
↓		
KCI(후보)등재지	130	109
↓		
1 st Filtering: 중복논문		
총계	209	
↓		
2 nd Filtering: 연관성 검토		
총계	190	

4) 데이터 작성(Charting the Data)

본 단계에서는 수합 자료들을 분류하고 데이터로 기술하게 된다. 본 연구자들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190편의 논문들을 초록 및 원문을 활용하여 저자, 발간연도, 개입방법, 주요결과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화하였으며 SPSS 25.0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5) 수집·분석, 요약 및 결과 보고(Collating, Summarizing and Reporting the Results)

마지막 단계에서는 분석결과들을 요약하고 보고하게 된다. 스코핑 고찰의 핵심은 검토한 많

2) 본 논문에서는 본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인용된 문헌들만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였다.

은 양의 연구자료들을 최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기에, 서로 다른 연구 결과들을 다시금 종합하거나 구체적인 근거의 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양옥경, 윤지혜, 2017; Arksy & O'Malley, 2015). 본 연구자들은 최소 매주 1회,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정기 토의를 통해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모든 과정은 기록되었으며 재확인 작업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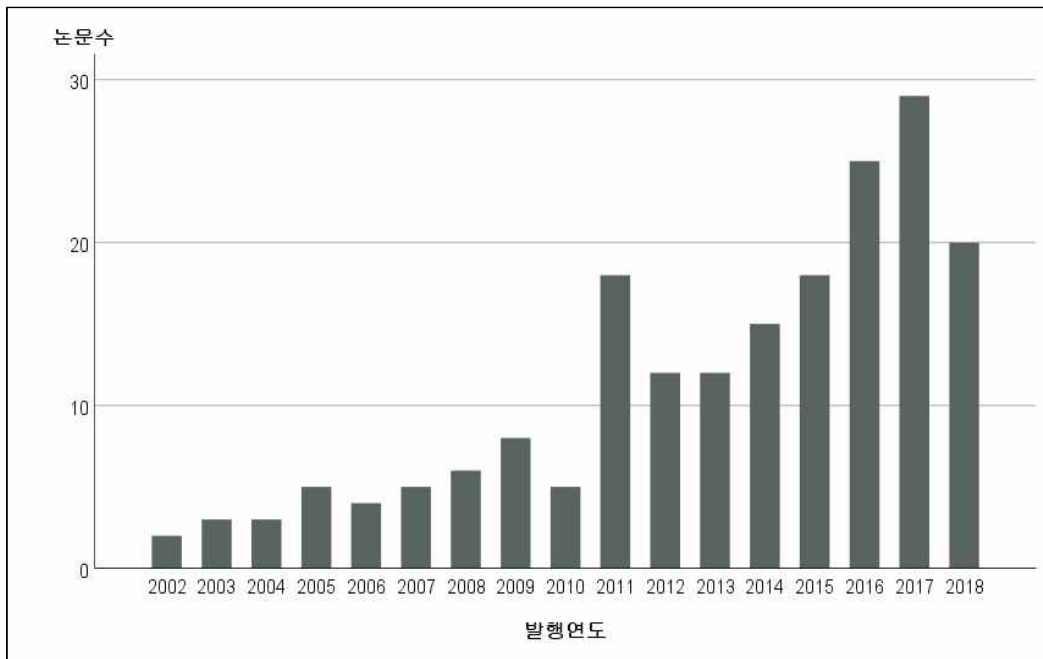
4. 분석결과

1) 연구의 전반적 동향

(1) 발표연도

‘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들은 2002년 박현선의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과 전우택의 ‘탈북자들을 통하여 보는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 전망’ 등 2편이 처음 출간되었으며, 대다수가 2010년 이후에 발표되었다(그림 3). 2011년을 기점으로 양적으로 급격하게 많아졌으며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2017년에는 29편으로 최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3] 발표연도별 연구 동향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로의 통합에 관한 연구논문들의 양적 증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 현황과 맞물린다. 논문의 수가 급증한 2011년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자 수는 이때를 기점으로 2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이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역시 현저하게 늘어났으며, 2009년 하나센터 개소와 2010년 북한이탈주민재단 설립 등을 필두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제기되기 시작했다(김화순, 최대석, 2011). 2016년에는 우리 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통일부에서는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엄한 대북제재보다 대화를 우선시하고 인도주의적 대북정책을 내세우며, 보수와 진보, 그리고 남북한 간의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2) 학술 분야

학술지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총 109개의 학술지(7개 우수등재지와 12개 등재후보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관련된 논문들이 발간되었다. 그 가운데 『통일전략』에서 10편, 『윤리연구』에서 7편, 『대한정치학회보』와 『통일정책연구』에서 각각 6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본 학술지들을 연구영역별로 대분야와 중분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학술 분야별 연구 동향

대분야 (N)	중분야	편 수(%)
사회과학(149)	정치외교학	53 (27.9)
	사회과학일반	28 (14.7)
	법학	15 (7.9)
	교육학	13 (6.8)
	사회학	8 (4.2)
	지역학	7 (3.7)
	정책학	5 (2.6)
	기타사회과학	4 (2.1)
	신문방송학	4 (2.1)
	심리과학	4 (2.1)
	사회복지학	3 (1.6)
	행정학	3 (1.6)
	지리학	2 (1.1)
	인문학(25)	기타인문학
한국어와 문학		7 (3.7)
기독교신학		3 (1.6)
철학		2 (1.1)

	문학	2 (1.1)
	역사학	1 (0.5)
	종교학	1 (0.5)
복합학(15)	학제간연구	12 (6.3)
	여성학	3 (1.6)
예술체육학(1)	디자인	1 (0.5)
합계: 190편		

총 4개의 대분야와 23개의 중분야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대분야에서는 사회과학이 149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회과학 내 중분야의 경우, 정치외교학이 53편(27.9%), 사회과학일반 28편(14.7%), 법학 15편(7.9%), 교육학 13편(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총 25편의 논문들이 기타인문학, 한국어와 문학, 철학 등의 중분야 영역에서 발표되었다. 하지만 각각 모두 10편 미만이었다. 복합학 분야에서는 총 15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그 중 12편이 학제간 연구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1편의 논문이 예술체육학 내 디자인 분야에서 발표되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는 사회과학, 특히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었던 한편, 전체적인 대·중분야별 분석에서 살펴보면 문학, 신학, 교육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실험 연구, 사례연구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자료수집방법인 문헌연구, 면접, 질문지, 관찰, 실험, 사례연구 등으로 연구방법들이 사용되기도 하지만(류진아, 2008; 김계현, 2000),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포괄하면서 구체적으로 분류한 김성경(2013)의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김성경은 크레스웰(Creswell), 그린 등(Greene et al.) 및 리앙 등(Liang et al.)의 분석틀을 기반으로 확장 및 수정, 총 6가지의 유형(설명적 연구, 실험 연구, 질적 연구, 통계데이터베이스 분석, 문헌연구, 다중방법 연구)으로 분류화하였다(Kim, 2014; 김성경, 2013). 첫 번째, 설명적 연구는 변인 간의 관계 양상이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두 번째, 실험 연구는 의도적으로 마련된 일정한 조건 상황에서 개입이 이루어진 후, 그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질적 연구에서는 면접이나 참여 관찰을 통해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상학, 사례연구, 생애사 등이 포함된다. 네 번째, 통계데이터베이스 분석은 2차 자료 연구로 연구자가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닌 타 기관의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연구방법이다. 다섯 번째, 문헌연구는 해당 연구주제를 분석체계에 따라 보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접근·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다중방법연구(혼합연구)는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의 방법 중 2개 이상의 방법들이 혼용된 연구이다.

연구방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절반 이상의 연구들(53.7%)이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를 이루는 연구방법은 주로 설문지를 활용한 설명적 연구와 인터뷰 및 면담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였다(각각 13.7%).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비교·연구한 논문은 2편으로 워크숍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분석한 연구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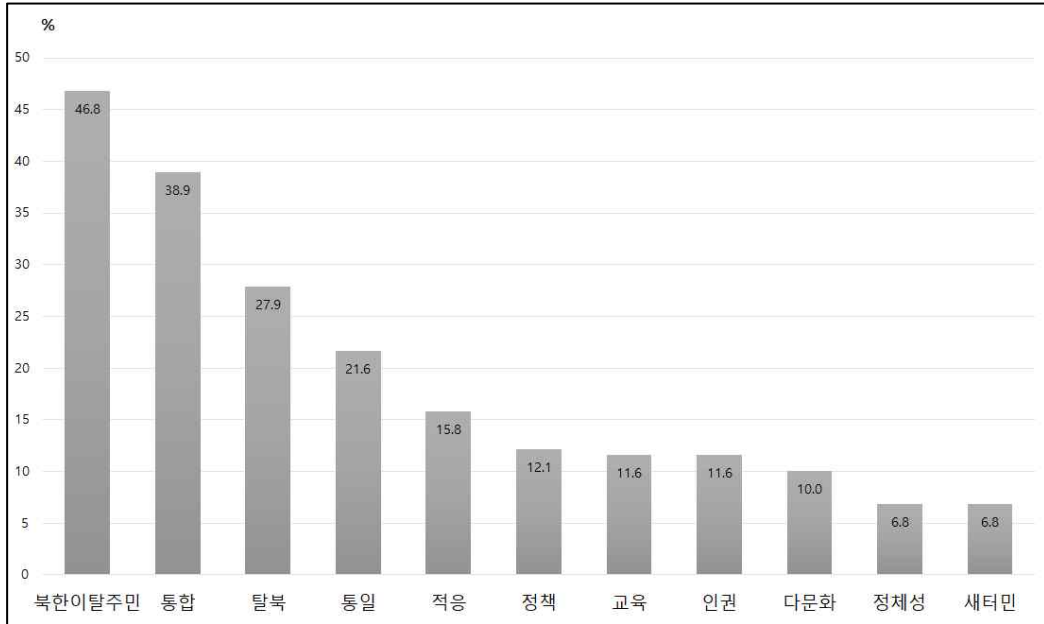
[표 2] 연구방법별 연구 동향

연구방법	편 수 (%)
문헌연구	102 (53.7)
설명적 연구	26 (13.7)
질적 연구	26 (13.7)
다중방법연구	21 (11.1)
통계데이터베이스 분석	13 (6.8)
실험 연구	2 (1.1)
합계: 190편	

(4) 주제어 분석

연구가들이 제시한 주제어를 분석해 본 결과, 검색어로 제시되었던 북한이탈주민과 통합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탈북, 통일, 적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통합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사회통합 외에 지역사회통합, 언어통합, 문화통합, 정서통합 등으로 언급되었다. 적응 또한 통합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회적응, 문화적응, 언어적응, 정서적 적응 등으로 사용됐다. 탈북은 대부분 탈북자, 탈북민, 탈북 여성, 탈북대학생 등 특정 인구학적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었다.

[그림 4] 주제어별 연구 동향



2)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 동향 분석

세부 연구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상위범주와 16가지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상위범주는 대상 그 자체인 북한이탈주민이다. 이에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지금껏 지내온 현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유 특성, 그리고 이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해당한다. 총 53편(27.9%)의 연구가 분류되었다. 두 번째로 통합 관련 정책 및 제도이다. 이는 다시금 거시적, 중도적, 미시적 접근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거시적 접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북한이탈주민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중도적 접근의 경우,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지원 및 행정체계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시적 접근의 경우, 정착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실무자 및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의 견해 및 입장을 살펴본 연구들이다. 총 45편(23.7%)이 해당하였다. 세 번째로는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사회통합에 개괄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적응 및 통합 과정에서 겪는 심리·사회적 위기, 정체성 문제,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다루게 된다. 총 65편(34.2%)이 본 주제로 분류되었다. 네 번째는 통일기반구축 및 통일 준비에 관한 연구들이다. 현재 남북한 분단 상황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파악하고, 통일기반구축 마련에 필요한 교육 및 기타 준비 사항들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이에 속

한다. 총 22편(11.6%)이 있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문헌 고찰, 즉 연구 동향 분석 논문들로 총 5편(2.6%)이 있었다. 하위범주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주제별 연구 동향

상위범주	하위범주	편 수 (%)
대상	북한이탈주민 인식	22 (11.6)
	현 북한 사회 이해	21 (11.1)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	10 (5.3)
정책·제도	거시적 접근(제도, 법률 등)	28 (14.7)
	중도적 접근(지방자치단체)	9 (4.7)
	미시적 접근(실무자, 북한이탈주민 당사자)	8 (4.2)
사회·문화	사회통합 개요	26 (13.7)
	심리·사회적 위기	17 (8.9)
	정체성 문제	16 (7.9)
	적응	5 (2.6)
	삶의 만족도	2 (1.1)
통일 주제	통일 인식	3 (1.6)
	통일 교육	8 (4.2)
	분단 현실	4 (2.1)
	통일 이후 상황	7 (3.7)
연구 동향	주제별 연구 동향 분석	5 (2.6)
합계		190

(1) 통합대상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접근

전체 190편의 논문들 가운데 근 28%에 해당하는 53편의 논문들이 통합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주제로 연구되었다. 우선 총 22편의 연구들이 통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관해 남한사람들이 가진 인식 및 태도에 관해 살펴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 3편의 연구가 남한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들에 관해 가지는 인식 정도도 함께 조사함에 따라 상호의식 및 갈등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신미녀, 2009; 유해숙, 이현숙, 2014; 이수정, 20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중매체, 사회적 위협감, 특정 정치성향 등이 언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지금껏 지내온 현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총 21편의 연구들로 살펴지고 있었다. 본 접근은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온 사회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살펴본 분야는 북한 사

회의 '인권'에 관해서이다(9편). 북한 내 인권관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강제수용소 등 북한 사회의 인권 유린 문제 또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었다. 북한 인권 주제는 만행에 대한 비판 및 우려 그 자체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의식이 어떤 배경에 형성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다(서보혁, 정상우, 김윤나, 2017). 그 밖에 북한 내 정치·사회 풍조나 남한 문화 수용 정도, 정치교육, 북한 문학, 보험체제 등을 살펴보고 있었다. 또, 총 10편의 연구들이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드러나는 그들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에는 자녀교육 양상, 양성평등의식 정도, 다문화 수용성 여부, 문학 활동, 종교 및 정치참여 행위 등이 속했다.

(2) 통합에 대한 정책·제도적 접근

통합과 관련된 법률, 정책, 지원체계 등을 다룬 연구들은 총 45편으로, 대부분이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거시적 접근은 16개의 하위범주만을 두고 살펴보면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분야이기도 하다(전체 190편 가운데 28편). 정착지원제도에 관한 실태 파악 및 개괄적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취업과 보건·의료 등 특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정책의 경우, 고용보조금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와 탈북 여성의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실태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한편,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 접근한 연구는 한 편에 불과했다(강동완, 2018). 또한,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유일무이한 일례로 손꼽히는 (구)서독의 통합정책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일명 북한이탈주민법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는데, 특정 대상인 북한이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신변 보호 지침 사항에 한정하여 고찰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형사처분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접근 연구들도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민간단체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둔, 이른바 중도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문헌 고찰 방식으로 살펴보거나 (구)서독 사례에 관한 분석에 기반하여 민관 네트워크 통합 방안 등을 제시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정착지원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들도 두 편 있었는데, 서울시 노원구와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되었다(박채순, 2011; 배병일, 배병돌, 2009).

세 번째 미시적 접근은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나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실무자들,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로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 실태조사를 함에 따라 각각의 기관 특성에 맞는 정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

었다. 정책프로그램 및 행정체계 등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의견을 물은 연구들은 총 네 편으로 확인됐다.

(3) 통합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영역은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34%에 달하는 총 65편의 논문들이 본 주제로 발표되었다. 하위범주들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사회통합에 관한 개요 부분으로, 이에는 어떠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바라보고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 연구들을 비롯하여 통합을 위한 필요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 등이 있었다. 통합의 하위 분야로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내적통합, 언어통합, 문화통합,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이 연구되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언어통합이었다. 관련 연구들은 현재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살펴보고 그 상이성과 유사성을 분석하였으며, 남북언어통합을 위해 추후 필요한 정책이나 교육 등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사회통합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안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내적통합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었다.

또한, 다수의 연구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함에 따라 치료 및 접근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우울, 트라우마, 자살(생각 및 시도), 무력감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 간의 갈등이나 이(異)문화 부부 관계 문제 등도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는 1편에 불과했으며, 대상은 20대와 30대에 한정되었다(장민수, 이재철, 2016). 이밖에도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구체적으로 소셜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가 1편 있었다(전은식, 장석준, 2017). 궁극적인 통합에 앞서 현 남한 생활에 우선 적응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도 6편으로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구체적인 대상을 한정하여 기술한 논문은 1편으로 남한에서 대학 시기를 보내는 탈북 대학생들 대상이었다(최명희, 2014).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역시 사회·문화적 통합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주제였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나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위치 및 헌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들,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정체성 유형에 관한 분석 및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그들이 가지는 정체성을 살펴보는 연구들로 구분이 되었다.

(4) 통합 관련 통일 주제에 대한 접근

북한이탈주민이 현 사회에 잘 어우러지고 통합되어 살아가는 여부는 남북한 통일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도 달려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반감이나 반(反)통일의식 등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선입관이나 차별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이탈주민 통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총 8편의 논문들이 통일 교육을 주제로 연구되었다. 이들은 통일 교육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었다. 더불어 총 3편의 연구가 통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그중 두 편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의식에 대해서도 조사함으로써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두 번째로 자주 다루어진 주제는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으로 총 7편의 논문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예를 들어, 통일된 한반도 모습을 가정하여 통합된 국회의원 선거나 표준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또 구체적으로 탈북 여성이나 러시아의 역할 등에 관해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현재 분단 상황과 관련하여 대북 인식, -지원, 이산가족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 통합 관련 주제별 연구 동향 분석

총 다섯 편의 논문들이 문헌 고찰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관련된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대상은 각각 탈북청소년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관련 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게재논문, 인문지리학 분야 게재 논문이었다. 2015년에 두 편이 발표되었으며, 2014년, 2016년, 2017년에 각각 한 편씩 발표되었다. 다섯 편의 논문들 가운데 엄격한 문헌 고찰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방법론을 제시·적용한 논문은 두 편으로 각각 스코핑 고찰 방법과 통합적 문헌 고찰 방법(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Method)을 활용하였다(양옥경, 윤지혜, 2017; 이민영, 2015).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Arksy와 O'Malley의 스코핑 고찰 5단계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스코핑 고찰은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 활동의 정도나 범위, 특성 등을 조사하고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Arksy & O'Malley, 2015). 이에 어떤 특정 연구 결과들에 관한 상세한 분석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이라는 주제에 관해 전반적인 연구 흐름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

였다.

본 연구 결과, 통합에 관한 연구들이 2011년을 기점으로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후 지속해서 발표되고 있음이 우선 확인되었다. 연구논문들의 이와 같은 양적 증가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위한 사회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현상과 맞물린다. 학문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지만 사회과학 분야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정치외교학에서 월등하게 많은 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는 주제별 분석에 따른 결과, 정착지원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연구의 수가 가장 많았던 것과도 연관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들을 위한 초기정착 지원은 중요하다.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정착과 관련된 지원이 공식적으로 5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수의 연구들이 정착 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관해 고민해왔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거시적 차원으로까지 광범위하게 바라보면, 남한사람들과의 상호관계, 여가 및 문화 활동, 이후 세대들의 정체성 확립 등도 경제적 자립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의식 있는 개인 행위자(human agency)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방법별 분석 또한 미시적 차원에서의 연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데, 분석 결과 문헌연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양적·질적 조사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각각 13.7%(26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행되는 정책이나 제도들, 혹은 프로그램들의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관점으로 분석하지만, 정착 실질적 서비스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의 평가나 제안들은 상당수 빠져 있었다.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제도와 전략들에 초점을 둔 거시적인 수준에서 접근되었고 북한이탈주민 단체나 기관들의 직접적 참여에 기반한 연구들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이민영, 2015). 그러므로 인터뷰나 설문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 미시적 차원에서 실무자나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의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들어보고 접목하는 후속연구들이 지금보다 더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주제별로는 크게 다섯 가지 상위범주(대상에 관한 접근, 정책 및 제도로의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통일 관련 주제, 연구 동향 분석)로 분류되었다. 그 가운데 사회·문화적 접근과 관련된 논문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총 65편 가운데 40편에 해당하는 논문들이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나 정체성 문제, 삶의 만족도 등을 다루고 있었다. 통합대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소수 집단이자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위기 및 문제들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효율적인 개입방법을 고안해내는 연구들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뿐더러 심리학이나 의학, 사회복지학 분야 등에서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이 되어 자신들의 생활을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요인들에 관한 관심도 높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가 되지 않는 한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될 수는 없기에, 이들의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empowerment) 등 연구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제삼자의 중재 및 개입을 넘어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개선해 나갈 힘과 능력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방안들에 관한 연구도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통합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학문적 정교화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경우, '통합'이라는 주제어를 명시하여 논문들을 추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개념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논문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또, 미시적 사회통합이나 거시적 사회통합(체계통합) 등 명확한 구분 없이 연구자별로나 연구영역별로나 관심을 둔 주제에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관한 심도 있는, 이론적 접근이 기반을 이루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체계적인 문헌 고찰 방법들을 통한 심도 있는 이론적 분석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해되고 있는 통합의 개념에 관한 정리 및 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그리고 한반도 현실에 맞는 사회통합에 관한 개념 정립 및 정책에 관한 정교화된 학문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의미한 결과 및 논의사항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들은 이들을 명명하는 호칭들이 여전히 통일되지 못한 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탈북자 그리고 새터민이란 용어에 한정하여 논문들을 선택·분석하였다. 하지만 연구자의 용어 선호도에 따라 북한 이주민이나 탈북 이주민, 혹은 북한에서 온 주민 등으로 언급되었을 수 있으며, 이에 검색과정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논문 검색은 DBpia와 KISS, 두 검색사이트에서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로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향후 분석은 국내외 다양한 연구 출처들에 대한 확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접근한 논문들의 동향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에 따라,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에 의의가 있다. 남한과 북한은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한 분단국가로 자리매김해 있다.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는 더 나아가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통일이란 것은 분단된 남한과 북한 간의 체제 통합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통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체제, 분단 등을 넘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회 구성원이다. 이들은 본

인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춰 열심히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통합되길 바란다(여현철, 2015). 남한과 북한이라는 구분 이전에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할 때,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서 평등한 기회가 주어질 때,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로의 진정한 통합은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동완(201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정착 지원 방안 - 보건·의료 분야 실태와 과제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1(2). 185-205.
- _____ (2019). 국내 입국 탈북여성의 경계짓기 - '직행'과 '중국행'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2(1). 1-26.
- 고상두(2010).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28(2). 269-288.
- 권속도(2014).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한국정치연구. 23(1). 101-126.
- _____ (2018).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통일연구. 22(1). 71-108.
- 금명자(2015). 한국심리학회지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동향 - 한국심리학회지 게재논문 분석 (2000 ~ 2013).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541-563.
- 김계현(2000). 상담심리학 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성경(2013). 내용분석에 따른 우리나라 가출청소년 관련 연구동향 연구: 학회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2001-2010). 청소년복지연구. 15(3). 1-22.
- 김성경(2016). 남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환대'의 권리와 의무. 현대사광장. 6. 94-113.
- 김예영, 유소연, 오진아(2017). 외상후 성장 관련 국내 학술지 연구 스코핑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13(5). 47-58.
- 김화순, 최대석(2011).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 연구. 20(2). 37-73.
- 남북하나재단(2019). <https://www.koreahana.or.kr/index.jsp>
- 류진아(2008).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연구동향: 학회지 게재논문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1). 87-99.
- 박채순(201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유입과 적응 실태 연구 - 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 5(2). 63-88.
- 박현선(2002).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북한연구학회보. 6(1). 209-240.
- 배병일, 배병돌(200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7(2). 141-163.
- 복지로(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InfSno=13>
- 서보혁, 정상우, 김윤나(2017).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의 당위성 고찰. 교육문화연구. 23(6(A)). 49-71.
- 송은희, 신은성(2012).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탈북자정책에 관한 연구. 글로벌정치연구. 5(2). 7-30.
- 송은희, 설진배(2013). 독일의 사회통합 인식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67. 367-392.
- 신미녀(2009).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 - 한국사회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 북한학연구. 5(2). 119-143.
- 양옥경, 윤지혜(2017).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연구 동향 분석: 스코핑 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1(2). 172-196.
- 여현철(2015).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40대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 사회사상과 문화. 18(3). 325-359.
- 유해숙, 이현숙(2014).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 비교연구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20. 325-365.
- 윤혜순(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21(11). 125-149.
- 이민영(201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착 지원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9(49). 39-69.
- 이수정(2014).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17(2). 85-126.
- 이윤희(2006). 파슨스 사회이론의 재조명 - 퍼스널리티 개념을 중심으로 -. 담론 201. 9(3). 5-31.
- 장민수, 이재철(2016). 북한이탈주민 젊은 세대는 행복한가? 삶의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42(2). 277-301.
- 전우택(2002). 탈북자들을 통하여 보는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 전망. 통일연구. 6(1). 47-61.
- 전은식, 장석준(2017).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와 자기 노출이 사회 구성원의 신뢰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새터민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4(1). 219-257.
- 최명희(2014). 교우관계를 통한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4). 191-214.
- 통일부(2019).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 Arksey, H. & O'Malley, L. (2005).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8(1). 19-32.
- Kim, S.K. (2014). A Review of Research on Runaway and Homeless Youth: A Comparison of Trends Between American and South Korean Journals from 2001 to 2010.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31. 107-118.

◀ Abstract ▶

Research trends analysis on North Korean refugees' integration into the Korean society

Anna Kim* & Eunmi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search trends of studies dealing with the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t present nearly 33,000 North Korean Refugees live in Korea. With such a substantial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settle and live in our society, our social interest on their sincere integration into South Korea as well as academic interest on this topic are steadily increasing, and more papers are continuously published. However, it was uncommon to analyze the general research trends on this topic. Therefore, we examined such research trends, using Scoping Review Method. A total of 190 papers were analyzed via the Korean academic information systems. One finding points out that the number of studies rapidly increased in 2011. The most of papers was published in social science, and more than half of such studies were conducted by literature review. According to topics, papers were classified in five major categories(object, political·institutional approach, social·cultural approach, related subjects on reunification and research trend analysis). Most of papers appeared in social·cultural approach.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studies on which North Korean Refugees participate, studies about diverse empowerment approaches, academic elaboration about integration on the basis of full systematic reviews, and others.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s, integration, research trends analysis, scoping review

◆ 2019. 7. 31. 접수 / 2019. 9. 9. 1차수정 / 2019. 9. 11. 게재확정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Daegu Catholic University(ankim@cu.ac.kr)

**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Social Cohesion, Daegu Catholic University(miya22800@cu.ac.kr)